

보도시점 2024. 4. 19.(금) 16:00 배포 2024. 4. 19.(금) 14:00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추진 방안 논의

- 4.19(금) 현장 다이브(DIVE) 11번째 일정으로 노후저층 주거개선
시범사업지 방문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금일(4.19(금))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11번째 일정으로 최근 민생토론회(3.19)에서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하였다.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뉴:빌리지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실장은 주차장·CCTV 등 주민이 원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에도 주민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 완화, 전문가 컨설팅,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현장방문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토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뉴:빌리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벽화그리기’와 같이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된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뉴:빌리지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주거지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책임자	과장	강준모 (044-215-7330)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장	김기훈 (044-201-3730)
		담당자	팀장	김목진 (044-201-4930)
			사무관	이정식 (044-201-4934)

